

복숭아와 애벌레

복숭아 속에서 만난 특별한 여름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찬란한 상상



안녕달 그림책 | 창비 2026

여름날, 잘 익은 복숭아를 반으로 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숭아와 애벌레』는 평범한 여름날을 상상으로 가득한 특별한 하루로 바꾸어 주는 그림책이다. 복숭아 속에서 만난 애벌레와 함께 신나게 뛰놀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린이 독자는 어느새 아이와 함께 복숭아 속 세상을 여행하게 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아이는 애벌레에게 “넌 다 자라면 뭐가 돼?” 하고 묻는다. 애벌레는 무엇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며 웃고, 아이도 되고 싶은 것이 자꾸 바뀐다고 말한다. 꼭 하나의 꿈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상상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꿈일지도 모른다.

상상



복숭아를 한 입!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여러분은 딱딱한 복숭아와 말랑한 복숭아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나요?
달콤한 향기와 식감을 떠올리며 더 먹고 싶은 복숭아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딱딱한 복숭아



말랑한 복숭아

그 이유는?

주인공 아이가 복숭아를 먹으려는 순간, 복숭아 속에서 애벌레가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애벌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둘의 대화를 자유롭게 써 봅시다.



애벌레 : 안녕!

나 :

애벌레 :

나 :

애벌레 :



복숭아 속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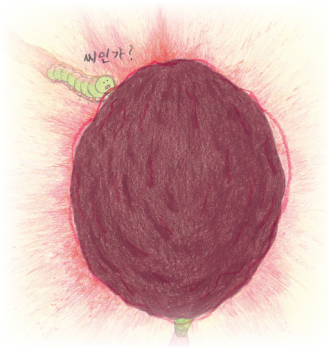
상상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내가 애벌레가 되어 복숭아 속으로 들어간다면
무엇을 하며 놀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놀이를 적고, 그림을 그려 봅시다.

예시: 커다란 미로를 만들어서 애벌레 친구들과 술래잡기하고 싶어요.



상상



내일의 나 꿈꾸기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아이와 애벌레는 신나게 놀고 난 후 다시 원래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아이가 “넌 다 자라면 뭐가 돼?” 하고 묻자, 애벌레는 무엇이 되어도 좋다고 답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꿈이 자주 바뀌어도 괜찮아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꿈을 적거나 그려 보세요!